

때가 왔도다

소명은 하나님의 때에 반응하는 시대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임. 내가 임의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결단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강조함. **시간이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그분께 그 시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강조함.**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타이밍을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 때 그 주어진 사명에 맞추어 타이밍에 맞게 살 수 있다**는 점을 강조. ex> 에스더가 황후가 된 것의 타이밍을 부각한 점.

시간과 규율을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 때 주어진 타이밍에 맞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함.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Gaius Julius Caesar)는 결정적인 신속함 (*celeritas Caesaris*)으로 유명하다. 그보다 더 유명한 것은, 그가 로마의 최대 지방인 갈리아를 즉각적으로 세 부분으로 분할한 사건이다. 그러나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뛰어난 지휘력으로 순식간에 승리를 쟁취한 다음 소아시아의 젤라 전투에서 했다는 불멸의 명언이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후에 알려지기로, 그는 50회 이상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으며 백만 명이 넘는 적을 죽였다. 주지하다시피,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의심 많은 도마나 주저하는 햄릿 같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카이사르 대왕으로 등극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주전 49년 1월 중순의 어느 차가운 밤, 51세의 카이사르는 전진하던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의심할 바 없는 그의 능력과 자질 그 무엇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았다. 오히려 그 모든 자질이 그가 직면한 중대한 결정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켰다. 그의**

발 앞에는 폭우로 크게 불어난 좁은 강물이 세차게 흐르고 있었다. 이 강은 그가 총독으로 있는 갈리아 지방의 남쪽 경계선이였다. 강 건너 편은 이탈리아 본토로서 로마와 로마 원로원이 지배하는 영토였다.

과연 군대 없이 친구 몇 명만 데리고 강을 건너서 자신의 지휘권을 포기하고 일개 시민으로서 로마에 불만을 표명할 것인가? 아니면 원로원의 권위를 비웃으면서 군대를 이끌고 강을 건너 로마로 진격해 내전을 일으킬 것인가? 그는 친구들에게 “강을 건너지 않으면 나에게 불행이 올 것이고, 강을 건너면 모든 사람의 불행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해 1월부터 로마의 집정관들은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총독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심지어는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극단 칙령’까지 통과시켰다. 카이사르의 총독 임기는 10년 만에 만료되었는데, 그들은 카이사르가 로마에 재입성해서 지방 총독의 후보자로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일단 그가 그 자리에 앉으면 그들의 권한을 넘어서게 될 것이므로, 그들은 10년 전 그가 집정관으로 재임할 때 헌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하여 그의 야망을 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카이사르와 원로원 간의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것이었다. 오랜 로마 공화국의 힘과 명성의 배후에는 원로원이 있었는데, 원로원은 ‘원로’(patres)로 구성된 특별한 조직체로서 로마 자체의 의지요 목소리이며 집행 기구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공화국 내에 긴장이 고조되어 갔다. 특히 가난한 계층의 증가, 로마 전쟁의 퇴역 군인들, 제국의 팽창으로 새로 유입된 사

람들 등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심각했다.

요컨대 원로원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더 이상은 팽창일로에 있던 세계 제국을 다스리는 데 따르는 도전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러나 원로원 자체는 개혁을 할 만큼 유연하지 못했고, 간헐적으로 군대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개혁을 통해 최고 권력을 손에 넣으려고 위협하는 것도 못마땅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그들 중 가장 위대한 최후의 군사 지도자였으므로 원로원의 권위에 치명적인 위협이었다. 카이사르는 26세 때 해적에게 잡힌 적이 있는데, 해적들이 그에게 20달란트의 보석금을 받고 풀어 주겠다고 제의하자 자기는 적어도 50달란트 가치가 있다고 말하면서 거절했다. 31세 때는 스페인의 카디스에서 헤라클레스 신전에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기념비를 보게 되었다. 수에토니우스(Suetonius)에 따르면 그때 카이사르는 알렉산더가 그 나이에 세계를 정복했는데 자신은 아직 이렇다 할 업적을 이루지 못했다는 생각에 격한 감정에 휩싸였다고 한다.

그 작은 강가에 선 바로 그 순간에, 카이사르는 정복자로서 이름을 아로새겼다. 어떠한 명령이나 허락도 받지 않고, 그는 앞서 간 그 어떤 로마 장군보다도 더 위대한 정복을 이루었다. 그의 수하 부대는 4개 군단에서 10개 군단으로 증강되었고 온 세계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키케로는 카이사르가 순풍에 돛 단 듯이 승승장구했다고 쓰고 있다. 플루타르크는 카이사르가 강 앞에 멈추기 전날 밤 어머니를 강간하는 꿈을 꾸었다고 기록했다. 아마도 어머니는 그의 발 앞에 정복당할 운 땅의 상징일 것이다.

그렇다면 카이사르에게는 오직 한 가지 대안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잠시 망설이고 있었다. 한 친구가 전하는 바로는, 카이사르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긴 채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러더니 근엄한 표정으로 자신이 내린 결론을 큰 소리로 선포했다. 한편에는 내전으로 인해 초래될 보편적인 불행이 놓여 있었다. 다른 한편에는 카이사르 자신의 불행, 곧 원로원과의 관계에서 당한 모욕과 괴로움이 놓여 있었다.

결국 카이사르는 한참을 숙고하다가 몸을 일으켰다고 한다. 그는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도박 같은 결정을 선언하면서 부하들에게 루비콘 강을 건너라는 명령을 내렸고 동트기 전에 인근 마을에 진입했다. 사실상 그는 원로원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5년 동안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엄청난 피를 흘린 다음,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거상(巨像)처럼 좁은 세계에 걸터앉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친구인 브루투스(Marcus Brutus)가 주도한 습격으로 수많은 단도에 찔려 죽음으로써 자신의 성급한 행동에 대한 피 값을 지불했다. 그러나 오래된 공화국은 마침내 무릎을 꿇기에 이르렀고 카이사르 가문의 로마 제국은 그의 형상을 따라 막 태어나려 하고 있었다.

일찍이 주전 63년 키케로는 지구상에서 로마의 지배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유일한 한계가 있다면 그것은 하늘의 결정뿐이라고 했다. 이제 그는 내전을 야기한 카이사르의 행동에 관해 “그 명분은 그저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썼다. 한마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 자신이 그 명분이었다. 만약 일반 대중을 확신시키는 데 하늘의 후원이 필요했다면, 그는 자신의 담대함과 결단성으로 그런 필요를 충족시켰

을 것이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첫 번째 황제’, ‘역사상 두 번째로 영향력이 큰 인물’, ‘세계정신의 집행관(해켈), ‘가장 다재다능한 인간’(야코프 부르크하르트) 등. 나폴레옹은 피테에게 (아마도 자기 자신에 대해) “당신은 카이사르의 죽음에 대해 볼테르가 썼던 것보다 훨씬 훌륭한 필체로 더 위대하게 써야 하오”라고 말했다. “그건 당신 생애 최대의 과업이 될 만하오.”

한편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주가는 높이 솟아올라 여전히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 관심사는 그의 위대성이나 천재성이 아니라 그의 업적에서 중심 역할을 했던 ‘때에 대한 감각’이다. 그가 게임을 하듯 던진 말(“주사위는 던져졌다”)은 이제는 의사 결정에서 본질적인 요소가 되었다. 그의 행동(“루비콘 강을 건너 것”)은 이제 운명적인 결정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에서 마르쿠스 브루투스가 한 유명한 말은 카이사르에게도 적용되며, 인간의 운명에서 타이밍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묘사한다.

인간사에는 조류가 있는 법.

만조를 타게 되면 행운으로 이어지고,

놓치게 되면 인생이라는 항해 전체가

얕은 여울과 불행으로 향하게 된다.

우리는 지금 그런 만해(滿海)에 떠 있으므로

순조로운 물결을 타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운(運)을 잃을 것이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비상한 경력과 자신의 때를 포착하는 기술,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손에 맡기는 모습 등은 소명의 진리의 또 다른 특징을 부각시켜 준다. 소명은 성공적인 삶을 특징짓는 타이밍 감각에서 본질적인 부분이다.

하나님의 때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비상한 타이밍 감각은 현대의 지도자들에게서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영국의 정치가이자 작가인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시대정신, 그것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현대 독일의 창조자인 비스마르크는 무자비한 막후 권력자였지만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더 큰 세력에 맞추어 조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는 정치가의 주요 과업은 “하나님의 옷깃이 스치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귀 기울이다가, 소리가 나는 즉시 뛰어올라 그 옷깃을 붙잡는 것”이라고 즐겨 말했다.

윈스턴 처칠도 유사한 타이밍 감각을 갖고 있었다. 다 빈치처럼 그는 인생이 짧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동시에 인간의 엄청난 가능성 또한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무정한 시간을 저주하라! 우리가 모든 것을 쑤서 넣도록 할당된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잔인할 정도다.” 따라서 타이밍은 처칠의 긴박감과 사명 의식에 열쇠와 같은 것이었다. “내가 보기에 우연, 행운, 운, 운명, 숙명, 섭리 등은 표현이 다를 뿐이지 결국 한 가지, 즉 인간이 자신의 인생 이야기에 기여하는 바는 외부의 더 우월한 힘에 의해 계속해서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그는 썼다.

물론 타이밍 감각이 있다고 해서 전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그와 반대로, 타이밍의 중요성은 한 사람이 맹목적인 힘을 지녔을 때 부족한 점을 직관적으로 보충시켜 준다에 있다. 이런 예는 야구 선수 중 최고의 타자들, 전쟁 시 최고의 장군들, 국사(國事)를 다루는 최고의 지도자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위대한 지도자는 반대 세력과 장애물이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그 이유는 그 자신과 활동하는 시기가 꼭 ‘들어맞기’ 때문이다. 물론 지도자라고 해서 모두 때 시간에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는 너무 빨리 오고, 대부분은 머뭇거리다 너무 늦고 만다. 오직 소수만이 성공의 비결인 타이밍 감각을 갖고 있다.

또한 타이밍 감각이 있다고 해서 전지하다거나 선견지명이 있다는 뜻은 아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조지 마셜(George Marshall) 장군이 주장했듯이, 지도자는 대부분의 결정을 ‘고질적인 모호함’ 가운데서 내린다. 훗날 뒤돌아볼 때는 명확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앞이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 행위 능력은 최대한 경우가 종종 있다. 이와 반대로, 모든 것이 불 보듯 분명할 때는 행동의 자유가 크게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돌프 히틀러의 경우 인생 초반에 그의 행로를 저지했다면 훨씬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를 저지해야 한다고 분명히 깨달았을 때는 이미 엄청난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때였다.

이상하게도 현대 세계에서 타이밍 감각을 얻기가 더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타이밍에 대한 강박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세대에 의해 자신을 규정하고, 세대 간의 갈등을 당연히 기대하고, 우

리 시대에 그럴듯한 명칭을 부여한다. 우리는 또한 진보를 기리는 동시에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향수에 젖는다. 그 결과 역사적인 관심의 폭이 극적으로 줄어들었고, 정체성과 생활 양식에 따라 새로운 집단을 분류하며, 세대와 시대와 양식의 전환이 크게 촉진되었다. 타이밍 감각이 이제는 파리의 유행과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모델만큼이나 시장의 유행과 욕구 불만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그러므로 생각의 전환이 약간 필요하다. 우리는 타이밍에 대한 모든 주장을 조심해서 다루어야 한다. 모든 시대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다고 느낀다. 학자들은 자기주장을 '큰 분수령'이라고 과장해서 말한다. '위기'는 현대의 변화무쌍한 상황에서 항존하는 특징이자 상투어가 되었다. 흔들리는 것이라고 해서 모두 넘어지지 않는 않으며, 여러 가지 '미래의 쓰나미'는 자그마한 소용돌이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된다. 큰 소리로 '전환점'이라고 외치던 것들이 대부분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지 못하고, 전환점 운운하는 논의에는 함정이 즐비하다.

최악의 현상은 요즘 타이밍이 트렌드 예측 그 자체가 대단히 수익성 있는 트렌드다—과 혼동되는 것이다. 트렌드 예측가는 현대 세계의 점쟁이로서 우리의 장래를 말해 주고 자신의 장래를 만든다. 윈스턴 처칠이 정치 영역에서 시끄럽게 떠들어 대는 예언자들을 비꼬아 말한 것같이 "정치가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은 내일, 내주, 다음달, 이듬해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예언하는 능력과 나중에 그것이 왜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는 능력이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오직 바보만이 타이밍의 중요성을 무시할 것이다. 올바른 일을 제때에 하는 것은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효과를

배가시킨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타이밍은 인생의 본질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아래서 역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것은 또한 율리우스 카이사르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다. '날', '때', '시대', '시기', '순간', '세대' 등과 같은 개념은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깨닫는 데 매우 중요하다.

히브리어에는 추상적으로 어떤 연대기적 시간을 지칭하는 단어가 없다. 대신 시간의 흐름보다 시간의 섭리와 목적에 강조점을 둔다. 즉 하루하루가 연속되는 것보다 한 날의 중요성에, 어느 순간이 측정되는 방법보다 그 순간의 의미에, 시간을 순환적인 것으로 보는 이방적인 관점보다 직선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에 강조점을 둔다. 셰익스피어가 언급한 만조나 '만해'(滿海)와 같은 개념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때가 차매'와 나중에 기독교 용어로 자리잡은 '하나님의 선한 때'라는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성경에는 좋은 타이밍의 예가 많이 나온다. 예를 들어, 구약성경에서는 다윗의 부하 중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들을 높이 평가한다. 아울러 나쁜 타이밍과 실기(失機)를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예도 나온다. 예레미야는 바로노고르 이렇게 면직시켰다.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성경에서 타이밍 감각이 가장 뛰어난 예는 분명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다. 예수님은 단 한 장(눅 11장)에서 열한 번이나 '세대를 언급하시는데, 그중 여섯 번은 '이 세대'를 지칭한다. 각각의 경우에 예수님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중대한 사건들에 대해 당대가 응답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셨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며 우신 이유는 그 성이 그분

의 '평화에 관한 일'을 놓치고 주후 70년에 있을 로마의 침공을 자초했기 때문이며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신 때를) 알지 못함”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성경의 예는 예수님이 자기 소명에 대해 지니셨던 타이밍 감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자들은 예수님의 주장을 통해서만 그분을 이해하려 한다. 예수님의 주장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 주장을 그분의 소명 의식을 통해서 이해하지 않고 따로 분리하면 그 위력이 크게 상실된다. 예수님은 어떤 '주장'을 발하는 자로 갈릴리 일대를 다니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자신의 소명을 추구하는 가운데 어떤 주장을 하게 되었고, 그 주장은 예수님의 자기 이해를 간파하게 하는 창을 열어 주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반응을 촉구하는 도전으로 작용했다.

예수님의 소명 의식은 수많은 상반된 예수 상(像)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특히 중요하다. 최근에 제시된 예수 상으로는 위대한 도덕 교사이자 모범, 민족주의의 선동가이자 실패한 유대인 혁명가, 세상의 종말을 고한 묵시론적 선지자, 배회하는 냉소적인 전도자 혹은 기민한 갈릴리의 성자, 이혼 후 세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가정적인 남자 등이 있다. 교회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반대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진리를 추구하는 자와 믿는 자는 이같이 판이한 초상화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겠는가? 예수님이 주님이요 하나님이라는 교회의 믿음에 비해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같은 혼동에 대처하는 유익한 원리로는 다음

의 네 가지가 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자기 신앙에 대해 어떤 특별한 변호나 보호를 요청하지 않는다. 그 신앙은 다른 어떤 신앙들과 마찬가지로 조사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최상의 조사 방법은 역사적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다. 거짓된 견해의 문제점은 우리를 다치게 한다는 점이 아니라 꾸며낸 허구라는 데 있다. 셋째, 역사를 검토하는 방법은 이중적인 접근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으로는 유대주의의 기대로부터 순행적(順行的)으로 접근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서들의 증거로부터 역행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넷째, “예수는 누구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결론적인 대답은 세 가지 핵심 문제, 예수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예수는 왜 죽었는가, 기독교 교회의 발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둘러싼 증거를 만족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이 핵심 문제들 중 첫 번째 곧 예수님의 자기 이해는 다른 두 가지를 해결하는 데 중추적인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자기 소명에 대한 이해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인생의 목적에 대한 의식이 현대에만 있는 독특한 특징이라는 주장은 한마디로 잘못된 것이다. 세례 요한, 다소의 바울 그리고 페리클레스, 소크라테스, 키케로,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등과 같은 많은 고대 지도자들처럼 나사렛 예수는 자신이 시종일관 추구한 지속적이고 중요한 목적이라는 동기에 이끌린 것이 분명하다. 상기한 인물들 가운데 요한과 바울이 그랬듯이, 예수님 역시 자신의 인생 목적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분명하게 이해하셨다. 그 소명은 그분이 세례 받으실 때 선포된 것으로서 사복음서 모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명에 대한 예수님의 인식은 전무후무하게 인간의 사고 지평을 초월했다.

첫째,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포로 상태의 종말,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분의 '평화에 관한 일'을 놓치는 모든 이에게 다칠 임박한 재앙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말씀하고 행동하셨다.

둘째, 더욱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메시아, 곧 인격화된 새 이스라엘로서 말씀하고 행동하셨다는 점이다. 그분을 중심으로 옛 이스라엘이 용서받고, 치료되며, 재정의되고, 재구성되는 것이었다.

셋째, 당대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점으로서 예수님은 마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웨께서 실제로 인간의 몸으로 능력 가운데 찾아오신 것처럼 말씀하고 행동하셨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오셨고,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신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되실 수 있다고 가르친 바를 이스라엘과 세상을 위해 행하기 위해 왔다고 보셨다. 따라서 예수님을 주님이요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것은 자연스럽고도 전적으로 합당한 반응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그분 안에서 행하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다.

이같이 두렵고도 충격적인 예수님의 소명은 그분의 생애 전체에 강력하게 흐르고 있다. 그 소명은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언뜻 드러난 바 있고, 세례 받으실 때 확인되고 선포되었으며, 그분의 기도와 영적 훈련을 통하여 배양되었고, 악의 권세와 대결하는 가운데 시험되었으며, 그분의 공적인 언행에서 입증되었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과 같은 상징적인 행동으로 실연되었으며, 겐세마네 동산에서의 회의를 통해 고민거리가 되었고,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절정에 달했으

며,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 정당함이 입증되었다.

타이밍 감각은 예수님의 소명 의식에 중심적인 것이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그분을 무대의 조명을 받도록 밀어 넣으려는 시기상조의 행동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이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분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터를 잡으라는 시기상조의 요구를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때가 왔도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도상에서 자신의 루비콘 강을 건널 때 겐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내용이다. 예수님은 그분의 말을 듣는 자들이 "시대의 표적"을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하시며, 그분이 친히 자신의 때를 완벽하게 읽고 계셨음을 보여 주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같이 평범한 추종자는 그분 같은 지식도 능력도 없으며 카이사르와 비스마르크같이 역사를 바꿀 수도 없는데 어떻게 '시대의 수수께끼를 푸는 자'가 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단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에 동참하는 것일 뿐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 과연 정말 그렇게 간단한 문제인가? 하나님은 흔히 신비로운 방법으로 움직이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충고는 종종 수동적이고 마비된 자세로 있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네 가지 주제는 우리의 소명 안에서 타이밍 감각을 가지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첫째, 소명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문제다. "하나님을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인 우리가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점에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함을 너무나 분명한 본보기로 보여 주셨고 너무나 강력한 권면으로 가르치셨다. 결국 '우리의 때는 그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타이밍에 대한 다른 견해가 미칠 수 없고 최고의 직관도 도달할 수 없는 차원이 있다. 우리 인간은 한마디로 우리 시대에 맞추어 처신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없다. 우리 삶에서 타이밍을 맞추려는 욕구가 자연스러운 만큼이나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들에게 맡겨지지 않았다. 우리는 인간의 결정을 둘러싼 고질적인 모호함을 피하는 척할 필요가 없다. 또한 트렌드 예측이나 손금 보는 사람을 찾아갈 필요도 없다. 우리 눈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한, 참새 한 마리까지 주시하시는 그분께 우리 인생의 타이밍 문제도 의뢰할 수 있다. 여호사밧 왕이 엄청난 대적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 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의 타이밍인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날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계수하시고 우리의 때를 아신다. 우리의 과제는 신뢰하는 것이다.

둘째, 소명은 타이밍을 맞추기 위한 부적절한 방법을 포기하는 문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다른 대상을 신뢰하려는 유혹에 대해서 이와 같이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자세는 소명에서의 타이밍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

다. 물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외에도 타이밍을 맞추려는 많은 시도가 있다. 투시력, 점치기, 미래학, 홍보, 마케팅이 몇 가지 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는 형제들의 요구를 거절하시면서 두 가지를 뚜렷하게 대조시키셨다. 그분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라고 말씀하신 다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고 날카롭게 덧붙이셨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도권에 달려 있는 반면, 인간의 길은 어떤 때이든 무슨 수단을 통해서든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높인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으니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결과 초래되는 문제는 인간이 자신을 드러내고 홍보하는 것이 힘에 있어서 섬리에 못 미친다기보다는 타이밍에 있어서 섬리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박학다식함을 예언과 혼동하는 시대에, 우리는 올바른 대상에게 권위를 부여해야 하며, 다가갈 대상뿐 아니라 등을 돌려야 할 대상에 대해서도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셋째, 소명은 준비 자세의 문제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는...항상...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에 관한 이야기부터 "노아의 때"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밤중에 도적같이' 올 것이라는 말씀, 그리고 잠자는 제자들을 향한 책망에 이르기까지 거듭해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깨어 기다리면서 경계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촉구하셨다.

햄릿의 친구 호레이쇼가 혹시 햄릿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레어티스와 의 결투를 피하고 있지 않은지 의아해하자 햄릿은 이렇게 대답했다.

“조금도 그렇지 않네. 나는 진조를 두려워하지 않아. 참새가 떨어지는 것에도 특별한 섭리가 있다네. 만약 지금이라면 앞으로는 오지 않을 것이네. 만약 장차 오지 않는다면, 지금일 것이네. 만약 지금이 아니라면 그것이 장차 올 것이네. 중요한 것은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최고 수준의 순종이다. 마치 충분한 연습을 거쳐 완벽하게 조율된 교향악단의 모든 시선이 지휘자의 지휘봉에 집중되듯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분의 미세한 음성이나 표시에도 응답할 채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에 반응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함으로써 무엇인가를 교훈하는 것 같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진을 쳤으니…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이 모든 표현은 지휘자에게 반응하는 이스라엘의 준비된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셋째, 소명은 결단의 문제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너희 중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앎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으리라].”

하나님은 자기 인생의 과업에 유보 없이, 물러섬 없이, 후회 없이 헌신할 사람들을 부르신다. 앞에서 언급한 키르케고르의 ‘신앙의 기사’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자신을 부르신 황제 폐하께 인생의 의미

와 결과를 건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적인 문제에서 등을 돌려 소명을 추구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소한 일도 그들의 의미를 방해할 만한 것은 없다. 어떤 과업도 소명의 용기를 꺾을 정도로 대단하지는 않다. 그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세상에 관여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것에서 결코 방향을 전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타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관심사와 이상을 바라보는 눈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야말로 항상 ‘틈새’에서 발견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바로 ‘이때를 위해’ 준비된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백성으로서 시대의 표적을 읽고 당대에 그분의 목적을 위해 섬길 준비가 된 자들이다.

❖묵상 질문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소리는 무엇인가? 당신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려고 씨름하는가? 당신의 예감을 해석하기 위해 온갖 선지자들을 동원하지는 않는가? 아니면 당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킨 채 당신의 때가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살고 있는가? 부르심인 동시에 명령인 사령관 예수님의 초대에 귀를 기울이라. “나를 따르라.”